

제5강 말씀을 자녀에게 심자 (3)

말씀은 살아있다.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하나 부족한 것 없는 풍부한 터전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게 한 것은
바로 그 언약(言約)의 말씀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人生)들을 위해
결국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말씀!

지금 이 시대처럼
말씀이 풍성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기록된 말씀이 없어
순회 설교자로부터 듣는
단 한 번의 말씀!
그러나, 그들은
말씀과 함께 했기에 지혜로웠으며,
그 말씀을 믿었기에 담대하였다.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그 분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만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人生)!

오늘!
그 분의 말씀이
책속에 갇혀있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이 되어,
내 다음 인생(人生)들에게도
영원 생명이기를 구하노라.

1.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가르칠까?

1) 집회(수요, 주일, 생활, 전도)에서, 모임에서 듣는 말씀과 간증으로 가르치기

- (1) 엄마가 집회 말씀을 듣고 와서 자녀에게 가르치기
 -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점, 자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
- (2) 최근 확인된 성경이 사실로 밝혀진 증거, 마지막 징조의 증거 등 경각심을 주는 가르치기
 - 노아의 방주 내부 촬영 영상, 미국 의료개혁법과 생체칩, 일본 대지진(쓰나미), 러시아 운석
- (3) 소중한 간증을 듣고 와서 들려주기
 - 인생의 어려움, 주변의 귀한 신앙의 사연들 자주 들려주기로 자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처해진 상황을 감사하도록 가르치기

2) 내 손의 성경으로 가르치기

무엇보다 어머니 당신의 손 안에 놓여있는 성경 자체가 말씀인데, 그 성경 자체에서 가르칠 말씀을, 가르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다른 어느 곳에서 찾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황(문제, 갈등) 발생 시 성경으로 가르치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입니다. 다만 작은 것에 사사건건 부딪히며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용히 지켜보다가 한 번을 다루더라도 깊고 충분한 정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자녀들 중에는 손이 덜 가는 '범생이'도 있지만(범생이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님) 자신의 논리를 세우고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 들지 않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가 마음으로,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채 어설피게 성경을 들이대면, 자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오해를 쌓아가게 됩니다. 결국 육신의 힘이 생기면 교회와 교제,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충분한 생각, 장기적인 안목과 지도 방법을 사랑 위에 세우시고 가르쳐야 합니다. 생활 속의 자잘한 것으로 자녀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굽직한 것, 패턴화 된 구조적인 죄들은 한 번의 말씀 지도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길게 여행할 준비를 하시고 숨을 깊게 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2) 일정시간 정해놓고 성경으로 가르치기

- ① 성경의 사건들,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부터 차례대로 가르치기(성경의 모든 기록이 소재)
 - 매일, 혹은 격일, 날을 정해놓고 사건과 인물 중심의 공부
 - 비전 성경 사전을 가지고 사전으로 성경 공부하기
- ② 머릿돌, 참빛 공과 주제를 따라가며 성경 공부하기
- ③ 잠언 프로젝트
 - 잠언서는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지혜를 주는 경구들의 모음입니다. 실제 지난 시간 자녀들을 문제 행동/상황에서 가르치기 위한 회초리와 약이 되는 말씀의 많은 성구들은 잠언서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잠언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면 부모와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 유익할 것입니다.

<잠언 묵상 노트 만들기>

잠언 묵상 노트를 만들어 하루 1절씩 기록하고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합니다. 이를 위해 포스트잇으로 필통에 붙여주기, 잠언 수첩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5번 읽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따라 쓰기>

노트를 구입하여 하루 일정한 분량을 정해 잠언 따라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다루고 있는 책 공부하기>

성인용 잠언 관련 책을 구입하셔서 어머니께서 먼저 공부하시고, 나이 어린 자녀들은 자녀들의 학교나 가정생활에서 도움되는 예화를 실어서 잠언을 설명해주는 서적을 구입하셔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p><잠언 관련 참고 도서> 예쁜 이야기 잠언, 모퉁이 돌 잠언 365 - 말씀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아가페 1318 잠언캘린더 - 365일 묵상 탁상용 캘린더, 생명의 말씀사 잠언 이야기 - 어린이를 위한 놀이로 배우는 성경 시리즈, 미션월드</p>
--

④ 장수가 적은 5권의 서신서 반복해서 가르치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5권은 서신서는 영혼 구원에서부터 생활 구원, 몸의 구원까지 모두 다룰 수 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5권의 서신서의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련된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먼저 유심히 살펴보시고 자녀와 성경 공부하실 때, 활용하십시오. 참 좋은 보물 창고입니다.

(3) 일상생활속의 소재를 가지고 성경으로 가르치기

- ① 전기세가 많이 나왔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 규모 있는 생활(살후 3:6,7,11)
- ② 엄마, 아빠가 교회 봉사 일이 바쁜데, 집 안 일을 함께 나누어 하는 방법은 없을까?
- ③ 아빠는 왜 널 사랑할까?
- ④ 엄마는 왜 교회에 갈까?

3) 가르치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들

(1) 성경 노트, 수첩으로 활용하여 성경 공부하기

- ① 실천/적용의 QT식 성경공부, 관찰-해석-적용식 공부법으로 성경 본문을 공부합니다.
- ② 초등학교 3,4학년 이상부터 적용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2) 항상 성경 단어의 개념을 묻고 확인, 설명하기 - 성경 사전, 성구 사전, 국어 사전 준비

- ① 단어 의미 질문 → 의미 찾기 또는 설명 → 질문과 응답 → 실천/적용
- ② 묵상 후 + 질문 → 질문과 응답 → 실천/적용

(3) 성경 인물 이름 대신 자녀 이름 넣어 성경 말씀읽기

(4) Old and New Time machine 성경 공부

과거 사건이 전개되는 현장 상황에 자녀를 극적 긴장감을 가지도록 끌고 들어갑니다(부모의 긴장감 연출 역량이 중요함). 다시 지금 이 시대에 자녀가 처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을 함께 생각하고 대비시켜 봅니다. 성경 기록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도 관계가 있음을 공부합니다.

(5) 역할 연습식(Role Playing)

자녀를 등장 인물(주연, 조연, 제 3자, 구경꾼)의 역할을 돌아가며 수행하여(두 자녀 이상일 때 바뀌어 가며 수행해본다.) 성경 말씀의 흥미진진함을 살립니다.

(6) 기자 인터뷰, 기사 작성, 사설 쓰기 등의 성경 신문 만들기

성경 사건의 등장인물과 인터뷰, 4단 그림, 신문 기사를 작성합니다.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생은 사건에 대한 신문 사설을 쓰도록 합니다. 가정의 성경 신문(도화지, A4, A3용지)을 만들어 보관합니다.

- (7) 등장인물에게 편지나 이메일 쓰기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충고나 조언, 칭찬과 위로의 형태로 마음 전달하기
- (8) 퀴즈나 스무고개, 문제 출제
일정 기간 성경 공부의 양이 늘어나면 퀴즈를 내거나, 스무고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가로 세로 넣기를 함께 만듭니다.
- (9) ‘우리 아빠는 목사님’, ‘나도 전도사님이 한 번 되어볼까?’
아빠에게 목사님의 역할을 주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또는 자녀가 전도사님이 되어 말씀을 가족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4) 질문의 구체적인 사례들

우리 역시 이러한 주님의 질문법들을 생각하며 자녀들과 성경을 공부할 때, 좀 더 자녀들의 수준에 맞는 좋은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1) 공부한 것 기억하고 재생시키는 질문(재생)

공부한 내용이나 경험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대개 성경 공부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며 단순한 지식과 사실에 관한 질문 형태입니다.

- ①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 ②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무엇이었니?
- ③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엇을 만들었나요?
- ④ 인류 최초로 살인을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니?
- ⑤ 야곱의 아들은 모두 몇인가요?
- ⑥ 창세기 13장을 읽고 주인공 아브람이 한 일을 차례로 말해볼까(적어볼까)?
- ⑦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차례로 말해볼까?

(2) 자녀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추론)

자녀들의 지식, 정보 등을 사용하여 비교, 대조, 판단, 분석, 종합하여 응답하게 하는 질문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질문, 문제 해결 수준의 질문입니다.

- ① 아브라함과 롯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 ② 아브람을 떠나는 롯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 ③ 네가 롯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니?
- ④ 구약시대에 비교하여 오늘날 장자(첫째 아들)의 직분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 ⑤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는 리브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 ⑥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녀 의견]
- ⑦ 네가 만일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니? [판단 요구]
- ⑧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이나 결과]
- 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예를 들어 설명]
- ⑩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⑪ 다니엘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니? 보다는 다니엘의 성격을 알아낼 수 있는 사건을 2가지만 다니엘서에서 찾아볼까?

(3) 자녀의 생각을 더욱 넓히는 질문(적용)

자녀들의 생각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상황 설정, 상상, 미래 예측 등을 해보는 질문으로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확산시키는 질문입니다. 내용과 반대되는 질문, 자녀가 예상하지 못할 역할상의

질문도 포함됩니다.

- ① 롯이 만약 아브람을 떠나지 않았다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
- ②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 ③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④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제사지내려고 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 ⑤ 만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⑥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끝까지 씨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 ⑦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
- ⑧ 에스더는 왜 첫날 잔치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왕의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의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에스더 5장)
- ⑨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6장에서 그 날 잠을 잘 잤더라면 어땠을까?
- ⑩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지기 전에,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했을까?
- ⑪ 다니엘이 창문을 닫고 3번씩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⑫ 다니엘의 3친구 이야기를 배우고 나서 네가 실천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까?
- ⑬ 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 대신 다른 순종의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 ⑭ 바울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

(4) 자녀들이 대답한 사실들 가운데 부족하거나 논거가 약한 부분을 발전시켜 줍니다.

- ①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말해 볼까?
- ② 그것이 무슨 뜻(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겠니?
- ③ 예를 하나 들어 말해 볼 수 있을까?
- ④ 방금 이야기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일까? 찾아낼 수 있을까?

(5) 자녀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주고받도록 격려합니다.

- ① 방금 ~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혹은 여기에 동의(찬성)하니?
- ② ○○는 그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 ③ 그 생각(말)에 대해 또 다른 좋은 점이나 문제점들을 찾아 볼 수 있겠니?
- ④ 또 다른 의견(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6) 더 생각해보도록 하는 질문을 합니다.

- 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까닭은 무엇일까?
- ②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은 평소 그의 어떠한 성격과 관련이 있을까?

※ 질문을 잘 하려면~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 1) 자신의 질문들을 미리 기록하여 봅니다.
- 2) 자녀의 반문을 예상하고 다시 응답할 질문을 적어봅니다.
- 3)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자연을 비롯한 사물을 볼 때, 인생을 볼 때 항상 자녀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2. 자녀에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기는 언제 끝이 납니까?

하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을 때요, 두 번째는 자녀 스스로 성경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관찰-해석-적용을 할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찰-해석-적용을 하도록 성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가 되어야만 끝이 납니다.

3.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관찰-해석-적용하는 말씀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 부지런하고 규모 있는 생활, 깨끗한 가정환경을 가꾸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TV로부터 자유를 선언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나와 내 자녀에게 어떻게 적용해볼까? 어떻게 전해줄까를 고민하며 메모하고 듣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렘 23:28)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誠實: 말씀이 이루어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겔 3: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겔 20:11)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겔 33:7)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